

시민저널리즘의 중국적 특징

윤 경 우 (Yun, Gyong-woo) *

(E-mail : gyongwooyun@kookmin.ac.kr)

논문접수일 : 2012년 4월 1일

논문심사일 : 2012년 4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2년 5월 17일

* 학위취득대학 : Temple University

현직: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시민저널리즘의 중국적 특징*

<국문요약>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민저널리즘이 권위주의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가설은 그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의 사회적 통념이 되어 대중적 사고 속에 굳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중국에서 시민저널리즘의 확산이 필연적으로 민주적인 정치활동을 급격히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을 수용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저널리즘의 확산으로 언론 지식·정보를 독점해온 기존 신문사나 방송사의 전문가적 권위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하지만 중국의 시민저널리스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과 달리 기존 언론사의 대안이 되거나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이버공간에서 공산당정부와 시민의 암묵적인 타협으로 인해 시민저널리즘이 중국의 권위주의적 지배를 약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일정부분 민주화 속도를 지연시키는데 작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주제어] 시민저널리즘, 지식·정보, 전문성, 시민담론, 민주주의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B00011).

I. 서론

단기간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은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얻는 방법에 수없는 변화를 초래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기술의 확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생각하기 어렵고, 뉴스와 저널리즘도 예외가 아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이용자의 능동성과 상호작용을 보장한다. 일방성만을 허용했던 기존 매체와 다르게 쌍방향성을 보장하는 인터넷 매체는 정보 소비자가 정보를 획득한 이후 정보제공자에게 직접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용자가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보를 창조하고 발굴하며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지식·정보의 일방적·피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 여론 생산자이며 확산자로서 개인들이 등장한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시민 누구나 직접 자신의 생활환경 속에서 소재를 찾아 뉴스를 생산하여 유통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는 제도화된 틀에서 활동하는 기존 언론인이 아닌 일반 시민도 뉴스의 제작 및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저널리즘의 확산은 언론 지식·정보를 독점해온 기존 신문사나 방송사의 전문가적 권위를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시켰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존 언론을 대신하여 시민저널리즘이 비판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경우 따라서는 엄청난 확산 속도와 범위를 무기로 기존 언론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중국의 기존 신문사나 방송사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에 따라 모두 관제언론이며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중국의 기존 관제언론이 일반 시민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고, 그러한 이유로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시민들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은 중국에서도 시민들

이 직접 뉴스와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여론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민생 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발언이 인터넷을 통해 표출되면서 시민저널리즘이 부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2010년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사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시민저널리즘이 아직까지 기존 언론사의 대안이 되어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보다 인터넷 매체가 훨씬 더 급속하게 발달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시민저널리즘의 등장이 왜 ‘자스민 혁명’과 같은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중국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저널리즘의 민주주의 기여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실증적인 분석과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의 인터넷 기반 언론매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터넷 매체의 사용자에 대한 조사나 인터넷 신문의 기술적 특성 또는 인터넷 신문의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인터넷 신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기존 오프라인 신문이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여전히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으며 공산당의 선전도구 역할을 하는 기존 관제언론이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영역이 확대된 기술적인 측면의 차이만 있을 뿐, 엄밀한 의미에서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시민저널리즘의 민주화 촉진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미개척 분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저널리즘의 등장과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여전히 민주화가 지체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반 시민이 언론 정보 생산 및 확산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구성되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즉 시민저널리즘의 활성화가 중국의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당·국가와 시민저널리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우선 세계적인 인터넷 발전 추세에 대응한 국가 주도의 정보화와 그에 따른 언론환경의 변화를 추적한다. 즉 시민저널리즘의 부상과 함께 네티즌들 사이에서의 주류 미디어 영향력 쇠퇴 현상을 분석한다. 그런 다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시민이 직접 언론의 주체로 나서는 시민저널리즘의 활동에 중국 공산당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을 조망한다. 이와 함께 시민저널리스트들이 중국 공산당정부의 대응에 어떻게 반응하며 기능하고 있는지를 밝힌다.

II. 시민저널리즘의 개념과 특징

‘시민(citizen)’은 한 도시나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저널리스트(journalist)’ 또는 언론인은 일반적으로 신문, 잡지, 방송 등에 뉴스를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시민’과 ‘저널리스트’를 합하여 ‘시민저널리즘(citizen 또는 civil journalism)’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일까?

대부분의 용어와 마찬가지로 ‘시민저널리즘’도 뚜렷하게 합의된 개념 정의가 부족하지만, 일반적으로 ‘시민’이란 단어가 제시하는 것처럼 개별 시민이 기자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형성하는 저널리즘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학자들도 시민저널리즘의 주체를 시민으로 인식하는데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일반 시민이 더 이상 수동적인 독자나 시청자에 머무르지 않고, 정보의 수집·보도·분석·유통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³⁾

3) 일부 연구자들은 시민저널리즘과 관련하여 ‘public journalism’, ‘civic journalism’, ‘citizen journalism’, ‘citizen-based journalism’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Jeff Jarvis는 시민저널리즘 대신에 ‘네트워크화 된 저널리즘(networked journalism)’이란 용어를 선호한다. 최영목(2005), p. 93과 “Networked Journalism”, buzz machine 사이트(<http://buzzmachine.com/2006/07/05/networked-journalism/>: 2012년 2월 3일 검색) 등 참조.

전문적인 직업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직접 언론의 주체로 참여하는 시민저널리즘에서는 시민의 학력 배경, 전문성, 편견, 불완전한 정보 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시민저널리스트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아마추어 미디어 생산자가 거의 대부분이다.⁴⁾ 개인이 혼자 취재해서 사건이나 현상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다수의 일반 시민이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이 흔하다. 즉 시민저널리즘은 기존의 저널리즘과 달리 전문적인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주류 미디어 조직 외부에 있는 일반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단독 또는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이용의 확산으로 인해 진실추구, 권력 비판·감시, 긍정적인 사회변화 유도 등 책임은 더 이상 기존 제도권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일하는 전문적인 저널리스트의 몫만이 아니다. 일반 시민이 현장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정보를 얻어 확산시킬 수 있는 전문적 기량과 기술도 보유하지 못했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진화로 인해 시민저널리스트는 많은 경우에 있어 제도권의 전문적인 저널리스트보다 한 발 앞서서 기동성을 갖게 되었으며 짧은 순간 동안만 지속되는 대부분의 사건들에 대한 현장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훨씬 더 유리하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를 누구나 쉽게 생산하고 손쉽게 확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로운 언론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체제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시민저널리즘이 기존 저널리즘을 보완하거나 대신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시민저널리즘이 민주화를 촉진하는 촉매제로 기능하고 있거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공산당의 충실한 선전도구로 기능하고 있는 관제 신문사나 방송사

4) 한국의 ‘오마이뉴스’처럼 일부는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시민기자들이 참여하여 협업을 통해 인터넷 뉴스를 생산하기도 한다.

가 언론 지식·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생하고 있는 시민저널리즘은 기존 저널리즘과 경쟁하거나 갈등하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주로 인터넷 포털(portal)의 BBS와 웨이보(微博)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식을 알리고 심지어 정부가 은폐하는 사건까지도 파헤치며, 진실 추구하고 권력 비판 및 감시의 기능을 상실하고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기존 제도권 언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⁵⁾

공산당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야 하는 관제언론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중국 네티즌들은 정보의 제한을 해결하는 돌파구로 인터넷 게시판과 웨이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인터넷 공간을 통해 정부가 미처 손쓸 틈마저도 없이 취재한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사진기가 부착된 휴대전화는 현장성과 이동성을 극대화시켰고,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폰의 개발은 실시간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확산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하고 있다.

물론 기존의 제도권 관제언론도 온라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인터넷으로 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시민 독자나 청취자와 소통하는 방식이 형식적으로는 일방에서 쌍방향적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기존 관제언론의 온라인 신문이나 방송은 공산당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검열을 통해 엄격하게 온라인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시민과 쌍방향적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모든 관제언론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형식과 무관하게 진실추구와 권력 비판·감시라는 언론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 제대로 소통도 하지 못하기 때문

5) 'BBS(Bulletin Board System)' 또는 중국어로 '티에바(贴吧)'는 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대화·토론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웨이보(微博)는 '세미블로그(semi-blog)'라고도 불리는 일종의 중국판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일반적으로 중국판 트위터(twitter) 또는 페이스북(facebook)이라고 호칭하고 있으며, 대개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portal)사이트들이 운영한다.

에 시민저널리즘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언론통제가 심한 중국에서 일반 시민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민저널리즘의 부상도 저널리즘을 본업으로 삼는 기존 제도권의 전문 저널리스트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나 소통의 쌍방향성이 기술적 또는 형식적으로 가능해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체제의 선전도구로 기능하는 기존 관제언론의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보도에 식상한 일반 시민들이 직접 기사 제작 및 평론에 참여하는 시민저널리즘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매개로 현재 작용하고 있거나 궁극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여부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국인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민저널리즘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토대로 활용되어 민주화의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국적 특색을 가진 특정한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주화를 지체시키거나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III. 시민저널리즘의 중국적 특징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언론환경의 변화

체제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공산당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는 중국의 신문, 방송, 출판, 잡지 등 언론은 공산당의 기본적인 이념 및 정책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정부 각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홍보창구 역할을 해왔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 언론매체는 모두 관제언론이며,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도 공산당정부의 권력 유지를 위한 홍보이다.

개혁개방 이후에도 정치사회적으로 중국은 시민사회 위에서 억압

적으로 균립하는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치적 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화의 진전과 단위체제의 해체로 개인주의적 문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인터넷 매체가 보편화되기 이전까지 시민의 언론자유는 철저히 통제되었다. 정치적 독재체제 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적인 개혁개발 전략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은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했지만, 시민들은 불만과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땅하지 않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저널리즘의 핵심적인 변화 중의 하나는 과거에는 관영·관제언론이 정보를 일방적으로 독자나 시청자에게 전달했으나 이제는 기존 제도권 언론이 보도한 뉴스 및 평론에 대해 일반 시민이 댓글을 통해 제도권 언론의 전문 저널리스트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변화는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자기검열을 통해 콘텐츠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존 관영·관제 신문이나 방송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중국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정보의 제한이 약한 인터넷의 출현으로 일반 시민이 각종 BBS와 웨이보(微博)를 통해 정부나 관제언론이 은폐하는 사건까지도 파헤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수용자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지 않고, 기존 관영·관제 언론의 보도 및 평론에 대해 댓글이나 덧글을 통해 비판 및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직접 콘텐츠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유·무선이 통합됨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으로 인하여, 시민저널리즘은 현장성과 기동성 측면에서도 전통저널리즘을 초월하고 있다.

기존 관제언론이 일반 시민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시민들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러한 변화는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시민저널리즘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역할 및 콘텐츠 생산구조의 혁명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민저널리즘은 처음으로 BBS나 웨이보를 통해 항상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제도권의 기존 관영·관제 언론의 대안적인 구조를 가지게 됐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신세대 네티즌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독자나 시청자의 한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언론의 주체로 나서 기존 저널리즘과 경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신세대 네티즌이 주도하는 시민저널리즘은 저널리스트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주류 미디어의 영향력 쇠퇴와 시민저널리즘의 부상

중국 시민저널리즘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육수색(人肉搜索)’이라는 형태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육수색은 2006년 처음 생긴 용어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이 인터넷의 사이버공간에서 사회적 이슈가 된 인물이나 사건의 진상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공개하는 것을 일컫는다. ‘猫撲網(www.mop.com)’, ‘人肉(www.ren-rou.cn)’, ‘找人(www.zhaoren.net)’, ‘中國人肉搜索網(zgzw.groups.tianya.cn)’, ‘我愛找人網(www.52zw.com)’, ‘51找人網(www.51zhaoren.com)’, ‘找人吧吧(www.yologo.cn)’ 등 전문 사이트들까지 있다.

첫 번째 인육수색 사례는 ‘여성의 고양이 학대 사건(女子虐猫事件)’이다. 2006년 2월 28일 ‘12ookie_hz’라는 닉네임을 가진 네티즌이 마오푸왕(猫撲網·www.mop.com) 게시판에 한 여성이 하이힐로 고양이를 짓밟는 동영상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자, 이에 화가 난 네티즌들이 이 여성의 신상에 대한 털기에 나섰다. ‘黑暗執政官’이란 닉네임을 가진 네티즌은 5천 위안의 현상금을 걸었고, 3월 2일 ‘我不是沙漠天使’라는 닉네임을 가진 네티즌이 그 여성이 헤이룽장(黑龍江)성 몽베이(夢北)현 인민의원(人民醫院) 근무하는 이혼한 약 40세의 약제사(藥劑師)라는 사실과 함께 그녀의 사생활 및 성격 등을 밝혀냈다. 또

한 동영상 촬영자가 현지 방송국의 직공이라는 것도 밝혀냈다. 결국 그 여성은 병원을 떠나야 했다.

이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네티즌들의 반응을 내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1%가 급진파(急進派)로 언어가 매우 격렬했으며 심지어 폭력의 심리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14%는 온건파(溫和派)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사물을 논하지 않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를 바란다는 태도를 보였다. 15%만이 기타 의견을 피력했다. 공안국은 사건발생 후 여러 차례의 회의를 열어 토의하여 그 내용을 상급부문에 보고를 올렸으며, 당시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어떠한 법·규정 조항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공안국장이 직접 나서 법률적 진공상태임을 인정하고, 단지 도덕적인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까지 했다(夏俊 2009).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네티즌의 현장성과 기동성이 극대화되고 통제 상대적으로 약한 인터넷을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영상 이미지가 급격히 파급되는 현상은 일련의 자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도 역시 하나의 불가역적인 추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여성의 고양이 학대 사건’은 중국 네티즌이 협업을 통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즉 중국 네티즌의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일명 ‘화난호랑이 사건(華南虎事件)’도 네티즌들의 인육수색 위력을 보여줬다. 2007년 11월 12일 산시(陝西)성 임업청(林業廳)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산시성 안강(安康)시 진핑(鎮平)현 원차이(文采)촌에 사는 농민 저우정룡(周正龍)이 2007년 10월 3일 촬영했다는 호랑이 사진 71장을 공개하고, 1964년 이후 자취를 감춰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야생 화난호랑이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지방정부는 그에게 2만 위안의 상금까지 증명했다. 이를 중국의 주류 관영·관제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저우(周)씨는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2007년 11월 15일 ‘攀枝花xydz’라는 닉네임을 가진 네티즌

이 저우씨가 촬영했다는 사진 속 호랑이가 자기 집에 걸려 있는 달력의 호랑이와 줄무늬 배열까지 똑같은 정도로 유사하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국 사회는 사진의 진위논쟁에 빠져 들었다. 이후 며칠 동안 전국 각지의 네티즌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고, BBS와 웨이보에서 가짜파(擬假派·打虎派)와 진짜파(擬虎派)로 나뉘어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가짜파는 산시성이 화난호랑이 보호구를 만들어 관광지로 개발해 수익을 올리려고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전문가들도 사진이 교묘하게 합성됐으며 가짜파의 편에 섰다.⁶⁾ 이에 맞서 산시성 임업청은 여러 장의 호랑이 사진을 보여주며, 문제 사진의 호랑이가 달력 속의 호랑이와 비슷한 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가짜파들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11월 19일 중국과학원(中國科學院) 산하 식물연구소(植物研究所)의 종자식물분류학혁신연구조(種子植物分類學創新研究組) 수석연구원 푸더즈(傅德志)는 개인 블로그(博客)에 호랑이의 배경에 있는 나뭇잎과 호랑이의 비례가 맞지 않는다고 가짜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고 호언했다. 이에 맞서 저우씨는 다음 해 4월 이번에는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진위 공방전은 공기관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으로 비화하여 더욱 치열해졌다.⁷⁾ 이와 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민저널리즘은 중국판 쟁론(爭論)정치

6) “華南虎事件迎來拐點,打虎派稱周背後有利益集團”, 『中國寧波網(www.cnb.com)』, 2007年 12月 28日.

7) 화난호랑이 사진의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한 쟁론은 결국 산시성 공안청(公安廳)이 2008년 5월 12일 개입하여, 저우씨를 데리고 촬영현장을 실시한 결과 거짓임이 밝혀지면서 일단락됐다. 공안이 사진에서 두드러진 현장의 16그루 나무를 중심으로 사진 속 호랑이 크기를 계산하자 길이 27cm, 너비 35cm에 불과한 작은 호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우씨를 추궁한 결과이다. 그는 포상금에 눈이 어두워 사진을 조작했다고 자백했고,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상금도 취소됐다. 또한 사진의 진위를 검증하지 않고 상금을 증정한 책임을 물어 산시성 임업청 간부 13명이 면직 등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됐다. “華南虎照片事件發展過程回顧”, 『計世網(ccw.com.cn)』, 2008年 12月 26日.

를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인육수색은 특히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행위라는 중국사회의 병폐를 치유하는데 있어서 순기능을 한다. 저우주경(周久耕)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2008년 12월 11일 난징(南京)시 장닝(江寧)구 부동산관리국(房產管理局) 국장 저우주경이 언론 인터뷰에서 “원가보다 싸게 부동산을 분양하는 업체는 조사해 처벌하겠다”며 건설업체를 비호하는 발언을 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육수색의 표적이 됐다. 다음 날 그가 회의에 참석한 사진이 인터넷에 오르자 사흘 만에 7만 여명의 네티즌이 달려들어 왼손에 찬 시계가 10만 위안짜리 명품 ‘바세론 콘스탄틴(Vacheron Constantin)’이며, 피우고 있던 담배가 한 갑에 150 위안에서 180위안에 이르는 명품 ‘난징주즈준(南京九五至尊)’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후에도 네티즌들은 그가 고급 캐딜락을 몰고 그의 동생이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것도 확인됐다. 이후 장닝구는 그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 120만 위안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여 구속했고, 직위 해임했다.⁸⁾ 이 밖에도 중국 사회에서 권력과 부정부패의 감시자로 나선 시민저널리즘과 인터넷 여론의 힘을 증명한 사건은 부지기수로 많다.

네티즌 시민저널리스트와 주류 관영·관제언론 매체의 보도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평권취안(馮軍全) 논란이 대표적이다. 논란은 한 네티즌이 1983년생으로 20대 후반에 불과한 평(馮)씨가 충칭(重慶)시 용촨공업원구(永川工業園區) 항만·교량관리위원회(港橋管理委員會) 산하 기업투자유치분국(招商分局)의 국장(局長)이 된 것에 대해 ‘충칭시 용촨구에서 80년대생 국장이 다시 나타났다(重慶永川區再現80後局長)’는 글을 2011년 2월 11일 텐야논단(天涯論壇·www.tianya.cn/bbs/)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수많은 네티즌들이 댓글과 덧글을 통해 평(馮)씨의 국장 발탁에 모종의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자, 그 사례는 전국적 화제로 부상했다.

8) “周久耕事件始末：抽天價烟牽出收賄案獲刑11年”，『新華網(www.xinhuanet.com)』，2008年 12月 26日。

네티즌들이 제기한 의문은 그의 초고속 승진에 배경이 있는지, 그의 학력이 현 직책에 부합되는지, 그가 청렴한지에 모아졌다. 흥미로운 점은 제도권 주류 매체들이 평 국장의 승진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요소가 없었다며 네티즌 저널리스트들의 온라인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용촨구위원회조직부(永川區委員會組織部)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시민저널리즘과 기존저널리즘이 경쟁하게 됐다는 것이다.

관영·관제언론들은 평(馮)씨의 부친이 문맹의 시골 석공인데도 일가친척 중에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공직자가 없었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이 정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평씨가 국장직에 임명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기존 제도권 언론은 그가 직장을 다니며 공산당교에서 법학 학사학위를 받았으므로 그를 국장에 임명한 것은 인사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시(市) 당국의 발표를 들어 반박했다. 또한 인터넷에서 의혹이 일기 전인 2010년 11월 용촨구 간부 7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업무평가(崗位適應性考試)에서 평씨가 가장 높은 점수(88.4)로 1등을 차지했다며 시비 차단에 주력하는 시 당국의 입장을 두둔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평씨가 유독 좋은 자리로 자주 인사이동을 하는 등 초고속 승진을 하는 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면서 시 당국의 해명을 끈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⁹⁾ 그런 가운데서도 네티즌 일각에서는 가난한 농촌 지역 출신으로 17세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 9년 만에 국장에 오른 평씨와 같은 젊은 ‘기층 인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때로는 기존 관제언론의 전문가자들도 인터넷 BBS나 웨이보를 통

9) “80後局長獲政府力挺：17歲公務員父母皆農民”，『重慶商報』，2011年 2月 13日；“永川再現80後局長引熱議，組織部稱提撥通過考試”，『人民日報』，2011年 2月 13日；“記者調查稱引撥農民關注80後局長親屬多為農民”，『新京報』，2011年 2月 16日；“重慶80後局長獲區常委會首肯，稱推動幹部年輕化”，『中國新聞網(www.chinanews.com)』，2011年 2月 16日；“是違規提撥還是公正選人？，80後局長當事人應質疑(2)”，『新華網(www.news.cn)』，2011年 2月 16日；“是違規提撥還是公正選人？，80後局長當事人應質疑”，『人民日報』，2011年 2月 16日；“是違規提撥還是公正選人？，80後局長當事人應質疑(2)”，『人民日報』，2011年 2月 16日。

해 정부 당국과 관영·관제언론에 의해 은폐된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기도 한다. 2010년 6월 21일 충칭에서 발간되는 중경신문(重慶晨報) 소속 기자 3명이 ‘충칭시의 힐튼호텔 영업정지 명령 진짜 내막(重慶希爾頓酒店被責令停業的真實內幕)’이라는 제목으로 텐야(天涯), 런민망(人民網) 등이 운영하는 BBS의 하위 메뉴 토론방 곳곳에 중국 공안(公安)의 부당행위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자들은 6월 19일 힐튼호텔에 투숙하려는 시(市)의 한 분국(分局) 부국장(副局長)과 한 치안 지대(支隊)의 대장(隊長)에게 호텔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승강이를 벌인 일이 화근이 되어 충칭 공안국이 그날 저녁 호텔을 급습하여 102명을 체포하여 그 중 성매매를 알선한 호텔 직원 등 22명을 구속했으며, 호텔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호텔 대주주를 긴급 체포한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폭로했다.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 재난에 직면했을 때 시민저널리즘은 매우 유용한 역할을 했다. 특히 2010년 5월 12일에 발생하여 6만8천여 명의 사망자를 낸 쓰촨(四川)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현장성과 기동성이 탁월한 시민저널리스트들은 피해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전달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 및 복구 활동을 펼치게 하는데 매우 큰 공을 세웠다. 당시 발생 사실을 제일 먼저 알린 것도 한 대학생 네티즌이다. 그가 지진 발생 직후 기숙사 책상 밑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물건들이 마구 쏟아지는 가운데 촬영한 동영상은 자신의 웨이보에 올렸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의 네티즌이 볼 수 있었다. 인육수색도 지진 발생 초기 재해지역의 교통과 통신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지인들의 생존여부를 알아내는 데 결정적인 수단으로 활용됐다. 사건의 전 과정에서 신세대 네티즌들은 실시간 속보 능력을 톡톡히 과시하며,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협업 체계를 형성하여 자원봉사자란 개념을 부각시키며 지진구호와 재난극복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러한 시민저널리스트의 활동은 당시까지 비주류 매체에 머물렀던 인터넷을 주요 언론 매체의 하나로 수준을 격상시켰다. 세계 최대

규모의 네티즌과 휴대전화 사용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일반 시민은 더 이상 관영·관제언론이 전하는 뉴스에 의존하지 않는다. 주로 인터넷 웨이보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순식간에 수백만 명이 정보를 공유한다.

2011년 7월 23일 저장성(浙江省) 원저우(溫州) 구간에서 발생한 고속열차 충돌사고도 비슷한 예이다. 당시 고속열차에 탑승하여 사고를 직접 목격한 한 승객이 사고 발생 4분 만에 사건 내용을 2억 5천만 명이 가입한 시나웨이보(新鄕微博)에 게시했다. 이후 시나웨이보를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시나왕(新鄕網)에 단 하루 만에 329만개의 사건 관련 글이 게시됐고, 며칠 만에 그 수가 1천만 건에 달할 정도로 웨이보의 놀라운 파급력을 과시했다. 사고발생 14분 후 열차에 깔린 한 승객이 웨이보를 통해 구조요청을 하자 즉각 10만 여명에게 전파됐고, 2시간 후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이후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부상자들을 위한 긴급 헌혈과 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효과를 파악한 현지 관리들도 웨이보를 통해 현장의 구조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렸다(이희옥 2012). 이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보드를 통해 일반 시민저널리스트들은 다시 한 번 기존 주류 미디어의 기자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현장성, 기동성, 협업능력, 파급력 등을 보여 주었다.

이 사건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터넷을 활용한 보도는 사실성의 측면에서도 시민저널리즘이 기존 저널리즘을 압도하는 전형적인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뒤늦게 보도경쟁에 뛰어든 관영·관제언론들은 가급적 조용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부응하여 사건의 본질을 은폐, 축소, 또는 왜곡 보도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협업을 통해 관제언론의 보도와 다른 내용 또는 사건의 다른 측면에 대한 정보를 웨이보를 통해 공개하고 광범위하게 확산시켰다. 일반 시민은 기존 제도권 주류 언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티즌이 제공한 보도 정보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시민저널리즘이 중국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다.

중국의 인터넷 시민저널리스트들은 공산당정부의 통제를 우회하여 진실을 파헤치는 능력도 매우 탁월하다. 2010년 10월 8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중국의 류샤오보(劉曉波) 박사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당시 인터넷 검색창에서 류샤오보를 검색하면 중국 정부의 류샤오보나 노벨평화상 선정에 비판한 신화통신의 컬럼 내용을 자세히 전하는 관영·관계언론의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됐다. 이에 맞서 중국의 각종 인터넷 BBS에는 노벨상 시상식 생중계사이트 위치나 방화벽 우회 방법을 묻는 네티즌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해외 유료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시상식 생중계 장면을 볼 수 있다고 알려지자, 많은 네티즌이 주저 없이 가입하여, 시상식 시청을 시도했다.

이후 중국 정부의 보도금지 조치를 뚫고 이를 알리려는 네티즌은 방화벽을 우회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류샤오보의 성 ‘劉’와 발음이 같은 ‘六’을 사용하여 노벨상류(諾貝爾獎六) 또는 상류(獎六) 등의 제목을 달아 조심스럽게 축하메시지를 내놓았다. 노르웨이를 의미하는 ‘挪威’와 노벨상의 축약어인 ‘諾獎’이 인터넷 검색이 가능해지자, 네티즌들은 노르웨이 특산물인 연어(salmon)를 의미하는 ‘三文魚’와 ‘挪威的三文魚’ 또는 ‘挪威的森林’ 등 기발한 제목을 달아 수상소식을 전파했다. ‘劉曉波’와 발음만 같은 ‘疏曉撥’와 ‘流曉撥’ 또는 ‘曉波’와 발음이 같은 ‘宵波’ 등 동음사(同音詞)를 활용하여 중국 유명 포털사이트들인 시나왕(新郎), 텡선(騰訊), 소후(搜狐), 왕이(網易) 등에 류샤오보의 노벨상 수상 정보 전문공간을 설치하여 방화벽을 돌파했다.¹⁰⁾

2012년 상반기에 발생한 왕리권(王立軍)의 망명기도 사건과 보시라이(薄熙來)의 해임 사건도 일반 네티즌 저널리스트의 활약이 없었다면 은폐되어 일반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사건이다. 2012년 2월 16일 전(前) 충칭(重慶)시 부시장 겸 공안국 국장 왕리권이 청두(成都) 주재 미국총영사관에 진입하여 망명을 기도했으나 미국에 의해 거부됐고, 현재 중국 조사기관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10) “內地網封殺劉曉波, ‘三文魚’鬪河蟹,” 『明報』, 2010년 10월 9일, “劉曉波獲獎, 官方沈默, 網上熱議,” 『BBS中文網(www.bbc.co.uk/zhongwen)』, 2010년 10월 9일.

왕리권은 ‘(조직)범죄와의 전쟁영웅(打黑英雄)’으로 불리며 반(反)부패 캠페인을 주도하며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다. 그가 미영사관에 진입할 때 전(前) 충칭시 당서기 보시라이의 부인 쿠카이라이(谷開來)의 영국 사업가 네일 헤이우드(Neil Heywood) 독살과 보시라이 집안의 해외재산 은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권력을 이용해 사건의 은폐를 시도했던 보시라이는 2011년 3월 15일 해임됐다.

이후 보시라이의 신병처리를 두고 국가지도부는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보시라이를 지지하는 저우융강(周永康) 중국공산당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中央政法委員會) 서기는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무장경찰을 동원하여 중난하이(重慶)를 포위하고 군권(軍權)을 쥔 후진타오에 맞섰다. 결국 보시라이는 면직됐고, 공안·사법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저우융강은 임기 만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은 유지한 채 실질적인 권력을 상실하게 됐다.

중국의 관영·관계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초창기 함구와 축소로 일관했다. 보시라이의 통제를 받던 충칭일보(重慶日報) 등 충칭시 관영언론은 사건 초기 의도적으로 보시라이의 충칭시 당서기로서의 활동 상황을 보도하며, 그의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애썼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보시라이에 대한 중징계 결정한 이후, 웨이보 사이트에서 ‘보시라이’, ‘구카이라이’, ‘헤이우드’, ‘영국’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검색어의 기능이 한 동안 차단됐다.¹¹⁾ 중앙의 관영·관계언론도 해외 언론과 중국 인터넷에서 떠도는 보시라이 사건과 저우융강 주도의 내란설을 잠재우기 위해 저우융강의 활동 소식을 전하며 의도적으로 그의 견제를 과시했다.¹²⁾

11) 보시라이 낙마와 관련한 민감한 키워드는 한동안 인터넷에서 검색이 일괄적으로 차단돼 있었다. ‘보시라이’, ‘구카이라이’, ‘보과과’, ‘헤이우드’, ‘영국’ 등 이 사건과 관련된 키워드로 웨이보에서 검색을 하면 “keyword filtered”라는 짤막한 메시지만 떠올랐다.

12) “中國政府需要在網上自由言論的紐曲,” 『Digitalgroup.info(digitalgroup.info/wordpress)』, 2012년 3월 31일, “中國鎮壓政變的謠言在互聯網上,” 『新加坡新聞資訊網(www.news-hookup.com)』, 2012년 4월 1일, “王立軍事件之後,” 『網易新聞(news.163.com/special/wanglijunshijian/)』 (검색일: 2011년 5월 1일).

주요 사이트인 시나(新郞)웨이보(www.weibo.com)와 텡션(騰訊)웨이보(www.QQ.com)에 대해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들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을 3월 31일 오전 8시부터 4월 3일 오전 8시까지 중단했다. 국가인터넷신식관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SIIO)은 梅州信息港(www.meizhou.net), 興寧交友網(xn528.com), 網址之家(cndy.com.cn)을 비롯한 16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6명을 온라인 루머 조작 및 확산 혐의로 구속했다. 현재 모든 중국의 관영·관계 언론이 보시라이 사건을 ‘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 등 3대 관영매체의 보도만을 인용하여, 개인 비리 사건으로 축소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검열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중국의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소식을 전달해 온 ‘보션신원왕(博訊新聞網·boxun.com)’, ‘다지위안스바오왕(大紀元時報·www.epochtimes.com)’, ‘파룬다과망후이왕(法輪大法明慧網·big5.minghui.org)’, ‘중귀모리화거밍(中國茉莉革命·www.molihua.org)’ 등 중국 관련 온라인 사이트가 사건의 내막을 전파하고, 중국 내 네티즌들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은어들을 교묘하게 조합해 정보를 중국 사이버공간에서 전파했다. 보시라이는 ‘충칭휘귀(重慶火鍋)’ 또는 ‘호우동취(厚東去)’, 공산당 정치국 중앙상임위원 진입은 ‘상장(上市)’, 왕리권은 ‘왕라오지(王老吉)’, 미국영사관은 ‘코카콜라회사(可口可樂公司)’, 왕리권 체포는 ‘휴가식 치료(休假式治療)’, 후진타오는 ‘진후(錦胡)’ 또는 금호타이어(錦湖輪胎)의 준말인 ‘룬타이(輪胎)’,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텔레토비(teletubby)의 중국식 명칭인 ‘텐셴바오바오(天線宝宝)’, 저우융캉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캉스푸(康師傅)’, 중앙기율위원회(中央紀律委員會)는 ‘증권감독위원회(證監會)’, 자오쯔양(趙紫陽)은 ‘양조우차오판(揚州炒飯)’, 공안은 ‘청관(城管)’, 보시라이의 아들 보과과(博瓜)는 ‘자회사(子公司)’ 또는 ‘페라리(法拉利)’ 등 은어로 칭했다. 13) 네

13) 충칭휘귀는 충칭의 대표적 음식인 중국식 샤브샤브를 가리킨다. 텐셴바오바오는 중국 어린이에게도 인기가 많은 텔레토비(teletubby)를 뜻한다. 이 밖에 왕라오지는 중국에서 코카콜라보다 많이 팔린다는 진통차 음료이고, 캉스푸는 중국 라면시장에

네티즌들은 이러한 은어들을 조합하여 반어적 화법을 통해 보시라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통시켰다.14)

공산당정부의 통제를 받는 관영·관계언론의 정치관련 보도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티즌들은 주로 웨이보를 통해 보시라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유포했다. 이는 그동안 공산당이 독점해온 ‘정치’ 관련 정보의 유통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즉 그동안 공산당정부의 독점물이나 마찬가지로였던 정치관련 정보 유통에 시민의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를 가진다.

중국의 사이버공간은 일반 시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표현수단이 되었으며, 일반 시민은 사이버공간에서 기존 관영·관계언론을 대신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의 기능을 수행해가고 있다. 일반 시민네티즌이 인터넷의 BBS나 웨이보에 게시하는 글은 민심과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중국의 시민저널리스트는 정치나 사회의 감독자이자 비평가가 되고 있다.

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대만의 유명 식품회사다. 금호타이어는 중국 신차 타이어 시장 1위인 한국 기업이다. “網友暗語解讀3月19日中南海混戰,” 『唐 NTD Television』, 2012년 3월 21일, “天線宝宝大戰康師傅說的到底是什麼?,” 『法蘭西360論壇(forum.falanxi360.com/show.jsp?id=13325100473850524&cid=1187479305081137)』, 2012년 3월 23일.

14) 중국 네티즌은 “캉스푸(저우융캉)는 충칭휘귀(보시라이)를 상장(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시키고 싶었다. 그런데 오랜 합작관계에 있던 왕라오지(왕리권)가 충칭휘귀의 비방을 코카콜라(미국)에 몰래 전했다. 상장이 좌절된 충칭휘귀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왕라오지와’의 합작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캉스푸를 찾아가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 충칭휘귀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우리 자회사(보과과) 및 페라리(보과과의 스포츠카)와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와 같은 방식으로 은어들을 조합해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파했다. 최근에는 보시라이의 신병 처리를 둘러싸고 9인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내에서 터져 나온 원자바오 총리와 저우융캉 정법위원회 서기 간 충돌도 ‘텔레토비(天線宝宝)와 캉스푸(康師傅) 대전(大戰)과 같은 은어로 급속하게 유포 했다. “중국 당국의 검색이 차단 뚫는 기상천외의 은어들,” 『조선일보』, 2012년 4월 28일, “中國網民霧里看花的時評: 天線宝宝大戰康師傅,” 『文學城(www.wenxuecity.com/news/2012/03/21/1690594.html)』, 2012년 3월 21일, “天線宝宝大戰康師傅 - 海派,” Haipai’s Blog(www.haipai.info/archives/5862), 2012년 3월 22일, “zt太搞了!天線宝宝大戰康師傅,” 『博訊論壇(boxun.com/forum/201203/boxun2012/198518.shtml)』, 2012년 3월 22일.

3. 시민저널리즘 확산에 대한 공산당정부의 대응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으로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공산당 일당 독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공산당의 권위적 지배체제에 대한 도전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인터넷에 대해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윤경우 2011). 그렇다고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 발전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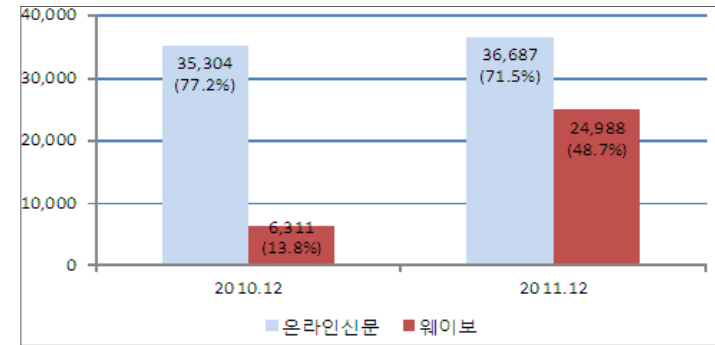
공산당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인터넷 보급 및 육성 정책으로 인해 중국 인터넷 산업은 속도와 규모의 측면에서 놀라운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최신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중국 네티즌은 전년에 비해 5,580만 명이 증가한 5.13억 명이며, 인터넷 보급률은 38.3%에 달한다.¹⁵⁾ 또한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의 규모는 3.56억 명으로, 전체 네티즌의 69.4%에 달한다. 그 중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의 규모는 1.9억 명으로, 전체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의 53.4%에 달하고 있다.¹⁶⁾

강력한 정보 전파 수단을 제공하는 인터넷은 사람들 사이의 교류 방식을 풍부하게 했다. 관시(關係)의 나라답게 중국에서 웨이보를 중심으로 한 SNS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 관영·관제 언론이 운영하는 온라인신문의 이용률은 2010년 12월말 77.2%에서 2011년 12월말 71.5%로 감소한 것을 포함하여, 근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웨이보는 네티즌의 정보 획득 경로 중 거의 반(半)에 육박하는 48.7%에 달할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네티즌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경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즉 중국 네티즌이 인터넷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경로의 전이(轉移)가 발생하고 있다.¹⁷⁾

15)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2012, 『中國互聯網發展狀況統計報告』, 1月.

16)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2012, 『中國移動互聯網發展狀況調查報告』, 3月.

<그림 1> 온라인신문과 웨이보의 사용자 규모(단위: 만 명)



중국 공산당정부는 ‘진둔(金盾)공정’을 통해 ‘만리장성방화벽(防火長城·Great Firewall)’이라는 검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단어의 ‘키워드 검색’을 원천봉쇄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일부 네티즌들은 은어를 사용하여 만리장성방화벽을 우회하기 때문에, 정치적 내용의 정보유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의 네티즌 저널리스트들은 공산당정부의 통제를 우회하여 진실을 파헤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 그들은 정부의 검열이 특정 단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터넷 키워드 차단 프로그램에 의한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마저도 인터넷 BBS와 웨이보를 통해 공유했다.

중국 내 대다수 웨이보가 비정치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일부는 정치사회적 비판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트위터(twitter)와 페이스북(facebook) 등 해외 SNS에 대한 접근이 철저히 차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웨이보가 중국에서 민감한 정보가 확산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17)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2012, 『中國互聯網發展狀況統計報告』, 1月.

인터넷 BBS와 웨이보를 중심으로 한 시민저널리즘의 확산은 기존 관영·관제언론의 권위가 억제된 측면이 강하다. 현재 중국 네티즌들은 정부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주도하면 무조건 수용하던 관습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거나 진실을 찾아내 전파함으로써 기존 관영·관제언론의 저널리즘을 대신하는 시민의 새로운 대변자로 급성장하고 있다.

효과적인 인터넷 통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민저널리즘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 중국 공산당정부도 위로부터 아래로의 일방적인 사회적 소통방식을 지양하고 웨이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아래로부터 민의·요구를 수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정부는 네티즌들이 공산당 집권체제에 도전할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동시에 체제의 안정화 및 공고화에 유리한 여론 조성의 통로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고지도자들이 직접 네티즌과 대화에 나설 정도로 ‘인터넷에서 형성되는 민의(網路民意)’를 크게 중시하고 있다. 2008년 6월 20일 후진타오 주석의 인민일보 웹사이트인 런민왕(人民網·www.people.com.cn) 토론사이트 창귀문단(強國論壇)을 통한 네티즌들과 첫 번째 채팅과 2010년 2월 28일 원자바오 총리의 중국정부사이트(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網·www.gov.cn)와 신화왕(新華網·www.xinhuanet.com)을 통한 채팅이 예이다.¹⁸⁾

더 나아가 원자바오 총리는 2010년 3월 5일 제11기 전국인대(全國人民代表大會)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감독하는 여건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언론이 감시역할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선포했다.¹⁹⁾ 그날 밤 전국인대 대표들은 신화왕, 런민왕 등 주요 사이트의 인터넷 대화

18) “胡錦濤總書記通過網絡論壇同網友在線交流.” 『人民網(www.people.com.cn)』, 2008年 6月 28日, “溫家寶總理首次和網友進行在線交流.” 『中國青年網(www.youth.cn)』, 2010年 7月 29日.

19) “溫家寶在十一屆全國人大四次會議上作《政府工作報告》(全文).” 『人民網(www.people.com.cn)』, 2010年 3月 15日.

방에서 네티즌들과 처음으로 채팅을 나눴다. 이후 전국인대의 각종 회의가 열릴 때마다 대표들의 네티즌과 대화는 상례(常禮)가 됐다.

2010년 9월 8일 중국 정부는 공산당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인터넷판 런민왕(人民網)에 ‘중난하이 핫라인(直通中南海-中央領導人和中央機構留言板·cpc.people.com.cn/BIG5/191862/191865)’이란 인터넷신문고를 개설하고,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최고지도부는 물론, 공산당 선진부와 조직부 등 주요 조직에 일반 시민이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²⁰⁾ 뒤이어 성급(省級)지방정부도 런민왕에 ‘地方領導留言板(liuyan.people.com.cn)’을 개설했다. 또한 각급 지방정부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관방홈페이지에도 인터넷 토론방(論壇)을 잇달아 개설하여, 온라인 여론을 크게 중시하고 있다. 특히 홍왕(紅網·people.rednet.cn)의 ‘百姓呼聲’, 자오둥자이선(膠東在線·weibo.com/jiaodongweibo)의 ‘地方領導留言板’, 아오이왕(奧一網·wen.oeec.com/gov/)의 ‘網絡問政’ 등 인터넷신문고는 정부로부터 우수 사이트로 포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 이들 게시판에는 수많은 건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부패방지책, 취업대책, 민생안정, 부동산, 정치개혁 등 최근 중국 사회의 관심거리를 다양하게 담고 있다. 이들 인터넷 신문고 게시판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형성하여, 시민의식을 발전시키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중국에서는 ‘인터넷 신문고정치(網絡問政)’라고 부른다(鄧兆安·張濤 2010).

이에 따라 정부 및 정부 관리의 주도로 개설된 BBS와 웨이보가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로부터 아래로의 시도가 새로운 방식으로 민주화를 촉진하는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들 인터넷신문고 게시판에 남

20) 베이징 중심에 위치한 중난하이(中南海)는 중국 최고지도부가 거주하고 일을 보는 권력 핵심부를 칭하는 용어이다. ‘중난하이 핫라인’은 중국 시민들이 최고지도층에 직접 민원을 호소할 수 있는 일종의 ‘인터넷신문고’인 셈이다.

겨진 네티즌들의 문의 및 건의 사항에 대해 중앙과 각급 지방정부의 지도자 및 관리들이 뒤늦게 대답하거나 아예 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비밀비재하다. 지방 정부 관리들이 일반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웨이보를 개설했다가 방치하는 사례도 수없이 많다.²¹⁾ 무엇보다도 네티즌들은 게시판에 남겨진 메시지가 지도자나 고위 관리자에게 실제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사회적 소통방식의 변화는 결코 시민저널리즘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하는 것이 아니다. 공산당 집권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중국 온라인미디어 질서의 본질적인 부분과 전반적인 정책은 여전히 공산당정부의 통제아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거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을 문제에 대해서 평소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묵인하는 듯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통제한다.²²⁾

아직도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시민과 소통의 도구보다는 통제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 정부가 직접 네티즌 시민들과 소통에 나서면서도 여전히 인터넷을 통제하는 이유는 인터넷이 공산당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공산당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민의 힘이 커지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기본입장은 공산당 집권체제의 영속성을 위해 인터넷 여론이 시민의 광범위한 집단행동으로 확대를 차단하는 것이다.

4. 당·국가와 시민저널리스트의 협력과 타협

21) 2010년 2월 22일 후진타오 국가주석 명의로 런민왕의 창궐론단(強國論壇)에 개설됐던 웨이보도 네티즌들에 의해 발견되어 언론에 노출된 지 하루 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삭제된 일도 있다. 당시 후진타오의 웨이보에는 그가 쓴 글이 아직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다. “網友熱捧胡錦濤微博 賬戶由強國論壇ID自動生成,” 『人民網河南頻道(henan.people.com), 2010年 2月 23日.

22) 중국의 인터넷 통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참조. 윤경우, 2011, “중국 사이버 민족주의의 성격과 특징”, 『중국학논총』, 제34집 pp. 329-353.

중국에서 네티즌에 의해 주도되는 시민저널리즘은 주로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감시기능으로 주목받고 있다. ‘런민왕(人民網)’의 여론감측실(輿情監測室)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77건의 비교적 영향력이 큰 핫이슈 중 인터넷을 통해 사회 대중에게 관심을 갖게 한 사건이 약 30%였으며, 이는 인터넷 여론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네티즌들의 87.9%가 인터넷 감시에 대해 매우 주목하고 있으며 사회의 불량한 현상을 목도했을 때 93.3%의 네티즌이 인터넷을 폭로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밝혔다.²³⁾

이와 같이 네티즌들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인터넷여론은 공산당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실체로 등장했다. 중앙과 지방의 정부지도자 및 관료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과 소통에 나서며, 당·국가가 일반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과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정부는 무조건적으로 인터넷을 탄압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제외하고 네티즌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견해를 표출하도록 허용하면서 민심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네티즌들의 BBS와 웨이보를 통한 낮은 강도의 부패나 사건·사고 등 주제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체제나 정권이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서면 지체 없이 개입한다.

또한 공안당국은 수사에 인육수색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네티즌들과 협력하고 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웨이보의 네티즌 저널리스트들의 도움으로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는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다. 2010년 2월 25일 광둥(廣東)성 자오칭(肇慶)시 공안국(公安局)이 처음으로 ‘평안자오칭(平安肇慶·www.zqga.gov.cn)’이란 웨이보를 개설한 이래로, 중국 전역에서 공안 당국의 웨이보 개설이 잇따르고 있다.²⁴⁾

23) 한인희,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인터넷 여론’에 주목해야”, 『프레시안』, 2010년 10월 17일, 人民網輿情監測室, 2009, 『2009年中國互聯網輿情分析報告』, 12月 22日, 人民網輿情監測室, 2011, 『2010年中國互聯網輿情分析報告』, 1月 16日.

24) “政府公安刮起微波風 圍觀正改變中國”, 『南方都市報』, 2011年 1月 1日.

실제로 중국의 공안들은 미제 사건의 수사 내용을 웨이보에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네티즌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 여론이 국내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 3월 17일에 발생한 쑤즈강(孫志剛) 사건이 대표적이다. 후베이(湖北)성 출신의 쑤즈강은 임시거주증(暫住證)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저우(廣州)의 수용소(救治站)에 수감되어, 다른 수용자들에게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 이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폭로된 뒤, 인권과 호적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강력한 사회여론이 형성되었다. 결국 국무원은 1982년 5월 12일 이후 시행되어 왔던 <도시 유랑걸인 인민수용소 송치법안(城市流浪乞討人員收容遣送辦法)>을 폐지하고, 2003년 6월 22일 <도시생활 무연고 유랑걸인 구조관리 방법(城市生活無着的流浪乞討人員救助管理辦法)>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²⁵⁾

인터넷 여론은 중국의 대외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의 BBS와 웨이보에서 민족주의적 대화를 장려해 외교적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의 대외 인터넷 여론은 자국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었을 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강성으로 흐르는 중국 외교정책의 저변에 애국주의로 무장한 네티즌들의 의견이 상당히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BBS와 웨이보의 콘텐츠에 대해 특정한 항목별로 자율과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네티즌의 BBS와 웨이보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 및 외교 분야의 민감한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을 대비할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 적절한 수준으로 억누르며 통제한다. 특히 다른 많은 네티즌들의 참여를 불리와 집단적 행위로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의도를 간파한 네티즌들은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BBS와 웨이보에서 노골적으로 의견을 표출하

25) “《城市生活无着的流浪乞討人員救助管理辦法》和《實施細則》施行”, 『中國法院網』, 2003年 11月 30日.

지 않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사례들처럼 은어를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일부의 네티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가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게시하거나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인육수색 활동도 그동안 정부가 사회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일종의 반부패 운동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보를 제공한 네티즌들을 구속한 보시라이 사건과 같이 권력게임이 포함된 예민한 정치적 문제의 경우,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정부는 사회적 불만이 폭발하지 않도록 BBS와 웨이보를 통해 하급 관리들의 부정부패나 강제철거와 같은 민생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티즌 저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배출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 국가의 감시범위를 넘어선 곳보다 어느 정도 통제된 환경 내에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공산당 권력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능숙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윤경우 2011).

정부의 암묵적인 묵인으로 네티즌 저널리스트들이 웨이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정치적인 주제가 민족주의다. 중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나 도발적인 내용은 인터넷의 BBS와 웨이보에 나타나자마자 검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즉각적으로 제거한다. 하지만 공산당 정권의 지배강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민족주의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다. 때로는 오히려 장려하거나 지원하고 있다는 의문을 야기한다.

중국 정부는 민족주의를 대중적 지지를 고취시키고 국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활용하고 있다. 시장화의 심화로 공산당 정권의 정통성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중국 정부에게 민족주의는 떨쳐 버리기 어려운 매력적인 수단이다. 그 결과 민족주의는 정서는 공산당정부의 묵인 아래 인터넷의 BBS와 웨이보에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는 중국 공산당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민저널리스트들은 BBS와 웨이보를 통해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부분적인 자유를 얻었다. 비록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은 것은 아니지만, 공산당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저널리스트를 제한적이나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당·국가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민저널리스트 사이의 압력적인 타협 없이는 불가능한 현상이다. 그리고 시민저널리즘의 등장과 힘은 인터넷문화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지만, 중국만의 독특한 현상이라면 기존의 관영·관제언론의 역할이 너무 미약한 나머지 기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IV. 결론

2011년 초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 예멘 등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활동가들이나 주력 집단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시위를 조직하는 한편 검거를 피하는 방법이나 최루탄 대응 요령 등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만 반정부 투쟁을 전개해온 활동가들이 인터넷을 반정부 시위의 동력으로 활용했다. SNS를 통해 전달되는 시위 현장의 생생한 사진과 시위 관련 소식들이 젊은이들을 시위 현장으로 이끌면서 시위가 빠르게 확산됐다. 이러한 점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아랍권 지역에서 발생한 시민봉기를 통한 민주화는 ‘인터넷 시민혁명’이라고 할 만하다.²⁶⁾

SNS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운동 확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국에서도 시민저널리즘의 활성화가 권위주의 체제 국가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

26) “중동 민주화 시위: 인터넷, SNS 위력과 한계”, 『연합뉴스』, 2011년 1월 29일.

로 증폭되고 있다. 아랍권의 인터넷 시민혁명이 오랜 독재체제 아래 억압돼 있던 언론 환경이 일차적 배경이 되었던 것처럼, 비록 체제는 다르지만 비슷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도 시민저널리즘의 활성화가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권 관제언론을 통한 개혁 촉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인터넷은 중국인에게 국가운영에 대한 비판·감시와 진실한 정보 제공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네티즌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분출하면서 힘을 결집하여 민주화 달성에 성공할 수 있는지, 즉 인터넷이 권위주의 국가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조직화의 새로운 수단으로 기능하여 중국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중국의 현실은 인터넷 발전이 반드시 민주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은 국가의 인터넷과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통제로 인해 시민봉기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랍권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인터넷 시민봉기의 핵심 동력이 되었지만, 중국에서는 집권세력이 인터넷을 차단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반정부 시위의 엔진을 꺼버렸다. 예컨대 중국 공산당정부는 이집트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자 2011년 1월 30일을 기해 이집트 시위·소동 사태에 대해 사실관계 위주의 제한적인 보도만 허락하는 통제 조치를 취했다. 이에 관제언론이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들은 신화통신에 의존하여, 사실관계만 제한적으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고 심층적 분석이나 논평을 전혀 내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의 인터넷 공간에서 이집트와 관련된 보도를 아예 원천봉쇄했다. 인터넷에서 ‘이집트’란 단어를 입력하는 것을 봉쇄하여, 아예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이전에 중국 관영 신화통신 인터넷판에 게시됐던 얼마 안 되는 이집트 관련 기사들과 그에 달린 댓글들도 모두 삭제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정부의 통제 조치는 인터넷이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조직화함으로써 당시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던 아랍권 국가들처럼 중국 당국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즉 중국 공산당정부가 가뜩이나 물가상승과 빈부격차 확대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랍권 민주화시위의 도미노 사태가 행여 중국에 영향을 미쳐 제2의 천안문 사태로 번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BBS와 웨이보 등 사이버공간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시민저널리즘은 아직까지 민주화를 위한 핵심적인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화를 위한 세력 결집능력이 부족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의 검열을 피해 정보를 인터넷 BBS와 웨이보에 게시하면서 정보를 교환하여 시위를 주동했지만, 소규모 시위자들만 규합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 밖의 대부분의 시민저널리스트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와 달리 침묵했다. 국가와 대다수 네티즌 사이의 암묵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트위터혁명’이라 불리는 이집트 혁명처럼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규모 민주화시위가 중국에서 발생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와 사이버저널리스트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암묵적인 타협하며 공생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양자의 암묵적인 타협은 시민저널리즘이 권위주의적 지배를 약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일정부분 민주화 속도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시민저널리즘의 성장이 민주주의 발전으로 연결된다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대표적인 반증의 사례로 남아 있다. 즉 중국에서 인터넷은 아직도 표현의 자유와 인권신장의 유용한 도구로써는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윤경우, 2011, “중국 사이버민주주의의 성격과 특징”, 『중국학논총』, 34집, pp. 329-353.
- _____, 2007, “중국의 반한류(反韓流)와 사이버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 주최 한국학세계학술대회 발표자료(부산: 누리마루&백스코, 8월 23-25일).
- 이희옥, 2012, “중국에 부는 SNS 열풍, 사회 변화 가속: 사회 투명성 제고 vs 여론 왜곡 논란”, 『China Journal』, Vol. 69, pp. 6-8.
- 홍인표, 2008, “가짜 야생호랑이 ‘네티즌 눈은 못 속여’”, 『뉴스메이커』, 784호, 7월 22일
- 卜建華·趙金亮, 2009, “當代中國網絡民族主義探析”, 『烟臺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2卷, 2期, pp. 109-113.
- 鄧兆安·張濤, 2010, 『中國式網絡問政: “膠東在線”的標本意義』, 廣州: 南方日報出版社.
- 人民網輿情監測室, 2009, 『2009年中國互聯網輿情分析報告』, 12月 22日.
- _____, 2011, 『2010年中國互聯網輿情分析報告』, 1月 16日.
- _____, 2011, 『2011年中國互聯網輿情分析報告』, 12月 19日.
- 尚洋, 2005, “網絡民族主義: 並不虛似”, 『世界知識』, 34期, pp. 61-63.
- 王軍, 2006, “試析當代中國的網絡民族主義”, 『世界經濟與政治』, 2期, pp. 22-29.
- 楊飛龍·王軍, 2010, “網絡空間下中國大眾民族主義的動員與疏異”, 『民族理論與民族政策』, 1期, pp. 23-29.
- 夏俊, 2009, “從‘虐貓事件’看網絡群體事件”, <http://blog.sina.com.cn/p-olicexiajun>, 2009년/08/03.
-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2012, 『中國互聯網發展狀況統計報告』, 1月.
- _____, 2012, 『中國移動互聯網發展狀況調查報告』, 3月.

Civil Journ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Yun, Gyong-woo
(Kookmin University)

Abstract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the spread of civil journalism in China prompted the weakening of authoritarianism. However,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disprove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pread of civil journalism and democratization in China.

The civil journalism has relatively weakened the power of state-owned and state-governed media whose information is tightly controll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Government. Nevertheless, the civil journalism has neither displaced the traditional journalism, nor contributed to the democratization in China.

This article is to show that the spread of civil journalism has not prompted the democratization in China. Instead, it proves that the implicit compromise between the party-state and civil journalists has been delaying the democratization in China.

Keywords : Civil Journalism, Knowledge·Information,
Expertise, Civil Discourse, Democracy